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성과와 과제

글 · 박경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충역사적으로 백제지역에 속했던 충남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공주(옛 지명 熊津)와 부여는 북방민족의 문화를 잘 계승해 일본으로 전파했으며, 당진(唐津)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서산과 태안지역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다. 백제의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와 교류를 하며 쇠락했던 백제를 부흥시키기도 했다. 부여에서 발견돼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한 금동대향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국의 향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한 이후 충남도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등 기독교사상이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일찍 개화사상이 싹트기도 했지만 이후 이어진 일제의 침탈과 뒤따른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충남도 또한 중국과의 교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전기지가 조성돼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했다.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높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충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올해 20주년을 맞고 있다. 또한 신동성을 비롯한 8개 성급 지역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 15개 시·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협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 교류에 비해 공공 및 민간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2. 충남도의 대중국 지방정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충남도는 한중수교가 체결되고 2년이 지난 후인 1994년 10월 중국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 외 모두 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해왔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 참고).

교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1995), 쓰촨성과 상하이시(1998), 연변조선족자치구(2002), 지린성과 장쑤성(2005), 랴오닝성(2010)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금년 10월에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헤이룽장성과는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및 교류활동 현황

구 분	단 체(체결일)	전체 교류 내용
자매결연	허베이성(94.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10. 9, 5명)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 [청소년교류] (9회, 92명)
우호협력	1. 산둥성(95.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13. 8, 15, 100명)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어학연수(09. 10, 산동대 15명) 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둥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 참가(01)
	2. 연변조선족자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천안월병 식품엑스포 연변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09. 9월) 농림 수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교류 : 20회 223명 청소년 교류 등(4회/44명)
	3. 지린성(02.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11. 9, 14명)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05.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경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13. 11) 환경분야 시책교류회 개최(매년)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09. -11, 동남대, 57명) 장쑤성 노인복지포럼 참가(11. 10, 복지보건국장)
	5. 쓰촨성(08.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촨대지진(08. 5. 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원)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10. 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 상하이시(08.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국장 신도시 건설관련 벤치마킹(09. 2월) 기획실장 일행 상하이엑스포 초청 참가(10. 5)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상품전 개최
	7. 랴오닝성(10.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닝성 잉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방문(13. 4)
	8. 윈난성(13.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윈난성 쿤밍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 우호교류협정체결 및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13. 6)

자료 :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충남도 1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지역의 위치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인 천안, 안산, 당진이 가장 활발히 중국과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서해안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지역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안은 산업과 문화(홍타령축제 관련)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아산은 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당진과 서산은 새로운 항로개설 관련해 중국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고 태안은 관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역지만 논산시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산둥성 지닝시(齊寧市)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공주시, 계룡시, 서천시, 예산군은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류활동이 저조하며 서천군의 경우에서 서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5개 지자체장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상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실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 상담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약추진 건도 상당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중개 혹은 지원으로 중국의 각 지역 혹은 단체와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의료, 문화행사(축제 참가, 고대 뱃길 탐방 등), 농업, 교육 및 홈스테이, 통상, 종교(유교) 탐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의 대중국 통상교류 현황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전체 교역량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점차 높아져 갔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가운데 충남의 대중국 교역량의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별 2013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3위이다.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5,590억 달러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충남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47%로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 충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2%로 나타났다.

● 특집3 _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과제

〈표 2〉 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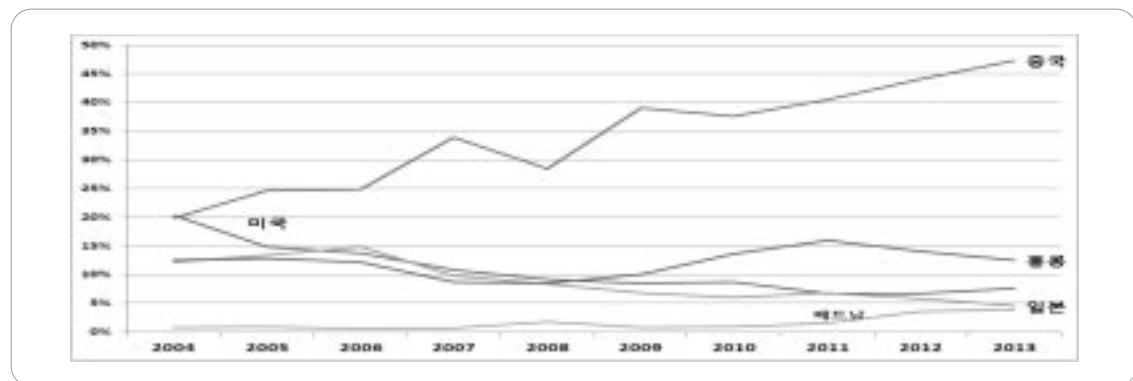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순위	지역	전체수출	중국수출	비중
1	경기	102,005	32,547	32%	1	서울	128,640	28,635	22.3%
2	울산	91,513	14,395	16%	2	경기	102,150	26,027	25.5%
3	충남	65,185	30,856	47%	3	울산	83,915	1,971	2.3%
4	서울	60,316	17,935	30%	4	인천	38,660	5,402	14.0%
5	강북	53,765	14,502	27%	5	전남	44,655	920	2.1%
6	경남	51,859	6,921	13%	6	충남	33,980	3,131	9.2%
7	전남	41,402	11,851	29%	7	경남	28,496	4,508	15.8%
8	인천	27,288	4,395	16%	8	경북	17,181	2,897	16.9%
9	광주	15,868	1,400	9%	9	부산	13,471	3,870	28.7%
10	부산	13,263	2,441	18%	10	충북	6,509	1,701	26.1%
11	충북	13,735	4,516	33%	11	전북	4,470	972	21.7%
12	전북	10,116	1,351	13%	12	광주	4,915	479	9.7%
13	대구	7,012	1,626	23%	13	대구	3,532	1,470	41.6%
14	대전	4,030	894	22%	14	대전	3,341	744	22.3%
15	강원	2,173	232	11%	15	강원	1,411	297	21.0%
16	세종	904	255	28.2%	16	세종	1,058	379	35.96%
17	제주	103	4,876	5%	17	제주	260	29	11.3%
합 계		560,536	145,869	26%	합 계		516,643	83,432	16.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 12 기준)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위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충남도의 수출액 비중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 비중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33.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역(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림 1〉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 추이



4. 향후 과제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 및 경제교류 이외에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관광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방향과 초점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은 좋으나 교류협력지역이 넓다보면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상품수출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방 정부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는 최근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환황해권의 핵심국가인 중국, 특히 발해만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안 지역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한 활동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만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충남도와 각 15개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충남도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간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하급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통상 교류사업 지원에서 민간단체 교류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전시와 판매 지원사업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 다수가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충남도에서 '서해안비전'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더 많은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과 함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포럼, 자문위원회 등) 구성 등도 필요하다.

※ 본 내용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4)'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